

사회

술 취해 새치기 하고 도우미 요구까지 여수박람회 꿀볼건 관람 매너

운영요원 성추행 등 하루 2000여건

“노래방에서도 도우미 해줄 수 있 어요?”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이하 박람회)가 일부 관람객들의 무질서와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 술에 취해 새치기를 하고, “노래방에 가자”며 여성 운영요원(도우미)을 성추행하는 등 일부 꿀볼건 관람객들로 조직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조직위가 발표한 ‘관람객서비스 시설 관람 추태 사례’에 따르면 꿀볼건 관람객들의 사례는 크게 ▲새치기 ▲욕설 ▲폭력 ▲성추행 ▲비성적 항의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많게는 하루 2000여건이나 접수되고 있다.
가장 많은 추태는 전시관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순서를 바꿔치기하는 새

치기였다. 그동안 새치기는 주중 평균 710여건, 주말 평균 810여건이 접수됐다. 유형도 다양했다. 장애인증도 없는 사람이 장애인 시늉을 하며 장애인 우선 입장 대기열에 서 있는가 하면, 일행이 안에 있어 먼저 들어가야 한다며 때를 쓰기도 한다. 새치기는 이번 박람회의 고질병 중 하나다.
다음은 조직위 관계자와 운영요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한정된 전시공간에 관람객이 몰려,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 젊은 운영요원에게는 반말을 일삼고 있다. 욕설은 평일 220여건, 주말 472건이 접수됐다.
운영요원에게 부상을 입힐 정도의 폭력도 잦다.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병을 운영요원 얼굴에 던지고, 침을 뱉거나 발로 차는 ‘주폭’의 만행에 아쿠아리움 등지의 운영요원 10여명이 그만두기도 했다. 평일 53명, 주말 81명의 조직위 관계자와 운영요원들이 폭력 피해를 봤다.
주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박람회장 식당과 마트에서는 버젓이 술을 판매하고 있어 음주 관련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적 농담을 던지는 취해도 많다. 노래방 도우미를 해달라, 껌안고 사진을 찍자, 전화 번호를 알려달라 등 꿀볼건 사례도 다양했다. 평일 76건, 주말 183건의 성추행 피해 사례가 조직위에 접수됐다.
이 밖에 만취한 채 안내 사무실 컵

퓨터 키보드를 뜯어가려고 하거나, 술 반입을 막는 운영요원 앞에서 술 병을 깨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태도 많았다.
또 아쿠아리움 수조에서 훔친 작은 물고기를 비닐봉투에 몰래 숨겨 나가려고 하는 등 전시 진행에도 큰 방해 를 주고 있다.
정문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주부 노미영(49·여수시 안산동)씨는 “술에 취해 치근덕거리는 일부 관람객 때문에 야간에는 여대생들 대신 주부들 위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 이라면서 “세계적인 축제에 오점을 남기는 꿀볼건 관람객들은 조직위가 강제 퇴장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홍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m@

성적 고민 여고생 목매 숨져

광주서... 경찰, 학교폭력 피해 가능성도 수사

광주에서 한 여고생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오전 8시50분께 광주시 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건물 가스배관에 광주 모 여고 2학년생인 A(17)양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이날 등교한 후 가방을 놓고 학교를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은 편지지 크기의 종이에 남긴 유서에서 “자신감이 없다. 자괴감이 든

다’ 등의 내용을 적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학교에서 반장을 맡고 있는 등 모범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졸업반 에서 1등을 하다 최근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며 밀리자 이를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학교폭력 피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향토개발음식 경연대회 20일 오후 광주시 북구가 주최한 제5회 향토개발음식 경연대회에 참가한 요리사들이 자신들이 만든 음식에 열을 장식품을 만들고 있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향토음식 13팀, 개발음식 20팀 등 총 33팀 54명이 참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리베이트 요구 의혹 전 교장 해임 의결

전남도교육청 징계위

전남도 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업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소속 교직원들에 대해 인격비하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아온 전남 지역 초등학교 전 교장(현 초등 원로 교사) 정모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상반기 학교비품 구

매 조건으로 가구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 자택 가구 15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이에 앞서 학교 방충망 설치업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50만원 상당의 자택 방충망을 공짜로 설치토록 한 점이 인정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정 전 교장은 그러나 “부적절한 돈은 단 한 푼도 받아 본 적 없으며, 인격모독이라는 말하는 발언은 교육적 소신에서 나온 일부 실실적 발언을 곡해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트레일러 **대형**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진경”

檢, 장휘국 광주교육감 소환 초임기

회계담당자 자택 압수수색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 선거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19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회계담당자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20일 오전 이 담당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 반경이 장 시교육감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관 3명을 파견해 장 시교육감의 선거 회계담당자였던 김모(45)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장 시교육감 선거 회계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광주지역 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함께 장 시교육감도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CN커뮤니케이션즈에 선거 대행을 맡겨 선거비용 보전받으면서 최소 6000만원 이상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CNC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압수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장 시교육감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대행을 맡은 CNC 측이 업체와 선거사무소 사이에서 물품이나 유세차량 등을 단순 중개하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익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만채 “이석기 생면부지... 선거비용 땀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20일 “선거비용 관련 의혹 제기와 관련, 함정 부끄러움이 없으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는 생면부지다”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생면부지인 사람과의 공모를 운운하며 색깔로 덧칠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교육감은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사를 거쳐 적정액을 해주는 것으로 절대로 후보자가 부풀려 보전받을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며 일부에서 4억 부풀리기, 리베이트 등 소문의 근원지조차 없는 내용이 여과 없이 나와 억울하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는 언제나 ‘바르지 못하

고 요사스러운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하였음(사불범정.邪不犯正)’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교육가족 명예 훼손, 교육 현장을 이념싸움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행위,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 등은 법적 대응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장 교육감의 선거 홍보대행을 맡으면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CNC측이 부풀린 선거비용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한편 상호 공모와 차익분배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부산교육감 가족제좌 추적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의 ‘못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경찰청은 교육감 가족 등 주변인물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일선 교육지원청의 특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웃을 건넌 유지원 두 곳을 지도감독하는 동래·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시교육청이 학급증서와 관련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와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연철뉴스

일했던 모델 들어가 현금 훔친 조폭

○30대 조폭이 자신이 일했던 모텔에 침입해 수백만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서형.
○2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경남 김해 일대에서 활동중인 모 폭력조직의 행태대장인 구모(32)씨가 지난 4일 오전 9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송모(여·72)씨의 모텔에서 현금 2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일정한 직업과 거처가 없는 구씨는 6개월 전 송씨의 모텔에 취업해 일을 하다가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다른 모텔에서 일을 하던 경찰에 탐미.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납품업체 뇌물 농협 간부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농협중앙회 소속 광주지역 급식공센터장 이모(52·4급)씨와 박모(47)씨 등 납품업자 2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될 돼지고기에 대해 kg당 300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하고 박씨 등으로부터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급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찰조사결과 박씨 등은 이 급식공센터 건너편에 창고를 짓고 고기를 납품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태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 인증이 없는 돼지고기 34t(2억원 상당)을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농협 소속 급식공센터가 광주·전남·전북 지역 학교 등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고 있어 업체들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트레일러 **대형** **1,2종보통** **2종 소형(오토바이)**

휴일에도 접수·교육 합니다.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